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마당에서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 신진식 전도사가 마가복음을 강의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꽃의 이름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행 16:16~34 / 시 97
계 22:12~21 / 요 17:20~26

겔 37:1-14
-----------

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유주연 조정자 문복순 이국노
다음 주 식당봉사 : 고숙이 오송경 이준립 한양미 오유경 최미자 김필순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 정윤성 서효진 김재환 최양순
다음 주 설거지 : 이나단 이경민 최재욱 이수정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단비를 내려 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며 푸석해진 우리 마음 밭에도 단비를 내리주소시오. 하여 생기를 가득 품은 이로서, 마음 한가운데 푸름을 간직한 이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권력자들의 횡포 아래서 신음하는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의 실적을 위해 아랫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불의한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를 버리게 하시고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소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권혁순 박해경 김경수 김경혜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두진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영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철수 유영남 김태성 문금석 문복순  
 민병배 문현미 박시내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박창운 허정운 방극숙  
 배부례 백묘현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임미심 오미경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이국노 김민화 이에서  
 이용규 노지현 이우엘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승경  
 이자영 이재문 이재훈 이종현 장영숙 정두리 정연희 정현모 최미자  
 한상익 정영선 허성호 진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

###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민균 노성희 김용규 송명 김종락 박영신 문금석  
 문복순 박옥식 박창운 허정운 방문성 오미경 이상재 김가현 김주현  
 윤석철 장혜숙 이동천 이재삼 전정현 이정은 이춘재 임창선 장영숙  
 허성호 진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

###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해경 김지호 전혜리

###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박호규 강영님 아주남성합창단 왕수명 윤정덕 구성실  
 윤미경 윤수진 장원호 박성희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이준림
김재흥	최경미	최경미	야외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장영숙
정경례	진정숙	안정숙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권미숙	박미영	허정운	침침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윤수진	이정은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홍춘숙	김경혜
박혜경	조항미	백성래	정현숙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 귀퉁나무

축석루 성곽을 따라 난 길 옆에  
 귀퉁나무들 줄을 서있다  
 누가 절 귀퉁나무라 이름 붙여  
 세워놓은 지도 모른 채  
 그저 겨울 앞에 당당했다/  
 다시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비었던 가지마다  
 이파리 수없이 밀어내며  
 가지에는 또 새까만 귀퉁을  
 덕지덕지 쏟아내겠지/  
 삶은 때로 수직적인 것이어서  
 축석루 벼랑은 두고  
 저 아래로는 강이 이어지고  
 그 위로는 길이 흐른다/  
 사람들 남강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깔깔대다 떠나고 적막인데  
 귀퉁나무도 자기를 사람들이  
 귀퉁나무라 부른다는 것을  
 알면 조금은 서운했을 것이다

김완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근원이요, 머리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자주 잊고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것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이혜수 선생 곽상준 집사

5	영접위원	한상익 김종락 이성범 정현숙 박영신 한상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 부르신 모양을 따라

먼저, 고유한 모양을 붙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통해 부르십니다. 부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모양으로 전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개별 교회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편적인 소명 속에 고유한 자기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만인을 위하여 열려 있다는 이유로 유행을 따르거나 대중적인 모양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제일 먼저 복음의 요청을 얼마나 충실하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듯합니다. 복음으로부터 파악된 영양분의 수치가 양호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자연스레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나무가 서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선택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은 어떤 토양을 만나 어떤 기후조건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맛과 향을 지닌 열매를 맺습니다. 보편적인 복음의 씨앗이지만 주어진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꽃과 열매가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비교회는 농촌 교회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비전도 그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한 이미지와 강조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자리 잡은 토양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비교회가 처음 세워진 후 목회자가 농사를 짓게 되고 마을 주민들과 형식 없이 교류할 때, 주변의 어떤 분들은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교회가 실천할 대중적인 선교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게 복

음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농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의 처지 속에 내려가 교류하는 중에 전도하고 자비량의 정신으로 농촌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이곳의 농민들에게 가장 쉽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목회자의 진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정주목회가 가능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분명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며 살았던 경험은 성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쓰고 기다려 소출을 얻고 기뻐하는 농민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을 읽을 수 있었고, 자연의 질서를 살피고 살면서 얻어진 지혜는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몸담은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길러진 생태적 마인드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 풍요롭게 신앙의 의미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노동 그리고 기도, 이 영역들이 공존하는 현장에서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여깁니다. 농사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에 참여할 값진 기회를 이미 얻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섬기기 위하여 겸손한 종이 되셨던 분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의 섬김, 곧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할 신앙정신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자리와 그 모습, 그리고 처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지켜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